

영국 앤 공주, 부산항 방문... 한·영 해양협력 강화한다

- 해수부, 부산항에서 영국 앤 공주와 만나 해양협력 교류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4일(화) 부산항에서 영국의 앤 공주를 맞아 우리나라와 영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1797년 영국 해군 프로비던스호를 타고 온 브로턴 함장이 출간한 항해일기를 통해 '초산항(Chosan Harbour)'으로 서양에 처음 알려졌다. 그리고, 부산항 개항 초기인 1905년에 당시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맥리비 브라운 주도로 항로에 위치한 암초에 제뢰등대가 설치되는 등 부산항은 한국과 영국의 인연이 이어진 역사적 장소이다.

이번 영국 앤 공주의 부산항 방문 행사는 앤 공주와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해양 및 관련 분야에서 초청된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부산항의 역사와 발전 과정, 그리고 양국이 함께 이어온 해양 교류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앤 공주가 총재로 있는 영국 트리니티하우스는 자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영국 펜던등대에서 1900년부터 123년간 사용한 대형 등대렌즈를 우리나라에 영구 임대해 주기로 2025년 4월 결정된 바 있다.

* 트리니티하우스(Trinity House): 1514년 헨리 8세의 왕실 칙령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영국의 항로표지시설 총괄 운영, 해사 자선 사업, 선원 교육 지원 등 담당

이 등대렌즈는 2025년 8월 영국(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 2025년 11월 우리나라(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오는 7월 15일에 국립등대박물관(경북 포항시)에서 점등행사를 마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등대렌즈의 영구 임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렌즈가 설치되었던 펜던등대와 렌즈가 전시될 국립등대박물관, 호미곶 등대 등의 모습을 담아낸 전통 자개 공예 작품을 제작하여 이번 행사에서 앤 공주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앤 공주의 부산항 방문은 한·영 양국이 바다를 매개로 쌓아온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앞으로도 영국과 해양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로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김형준 (051-773-5870)
	항행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희 (051-773-5874)